

금융허브 분과위원회 보고

2005. 12. 7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05. 12. 7

보고자: 위원장 김 준 경

차 례

I.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개요

II. 금융규제개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III. 향후 추진계획

I.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개요

① 구성

- 업계, 협회, 연구소의 민간전문가 총 13명

② 주요 검토과제

-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추진방향 및 기준 검토
- 2005-06년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지원
- 2006년 이후: 포괄주의 법령체계 도입 및 금융법 통합작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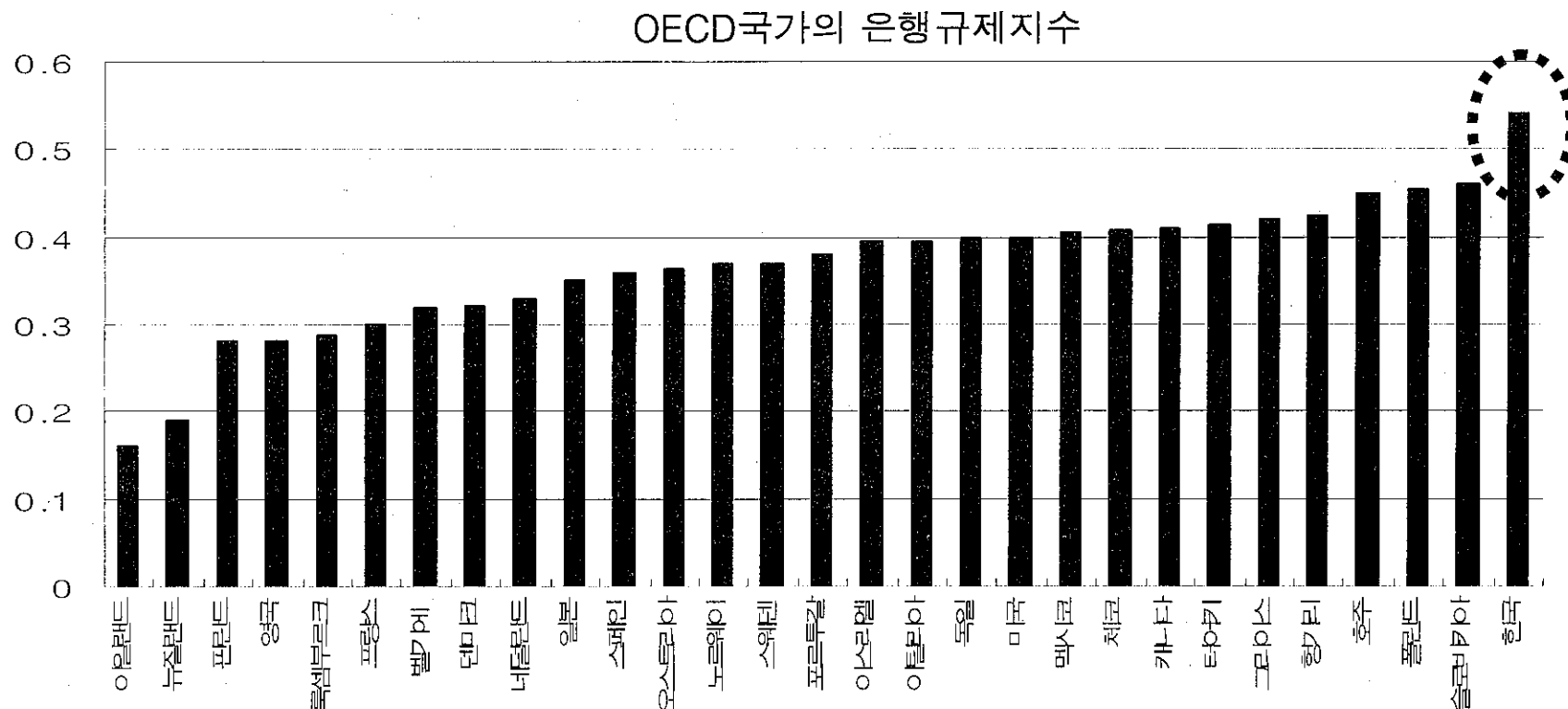
③ 검토과제 추진을 위한 분과위 운영방향

-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영업활동상 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 추구
- 국내외 규제체계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선진국의 규제선진화 사례 벤치마크

II. 금융규제개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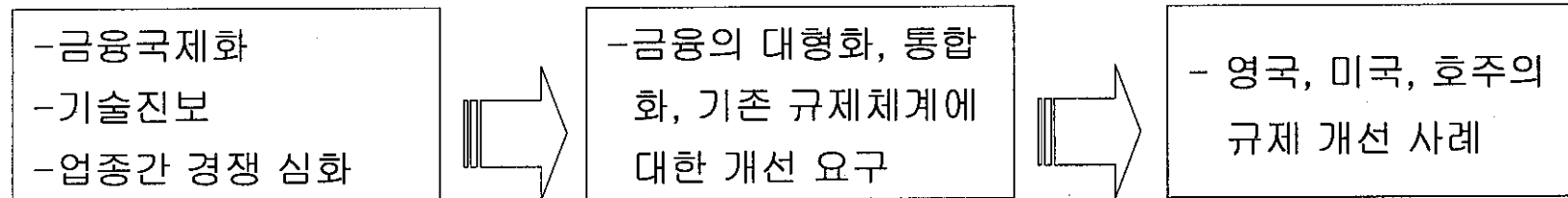
① 대내여건 : 우리나라 규제 체제의 문제점

- ‘칸막이식’ 업종별 규제 존속 등으로 OECD국 중 은행규제지수 최하위
 - IMD 보고서: 조사 49개국 중 은행규제 41위, 금융서비스 42위
- 외환위기 이후 금융그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범위의 경제효과 실현 미흡



II. 금융규제개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2/2)

② 대외여건



- 외국금융그룹의 국내진출은 국내 규제체제의 국제적 비정합성에 따른 공정경쟁 여건(level playing field) 침해 초래

③ 추진방향과 전략

- 경쟁제한요인 철폐 및 창의적 행위에 대한 보상체제 구축이 금융 허브 구축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 규제체계에 포괄주의적(negative system) 요소를 최대한 도입

III. 향후 추진계획 (1/3)

① 과제 1: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 추진현황

- 05. 5월 민관합동의 T/F(13개)를 구성하여 운영 중
 - * 금융관련법령 40개를 대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총 639건의 규제 재검토
 - * 총 101건(19개 법령, 규제완화 85건, 규제폐지 13건, 중장기검토 3건)과제 발굴
- 05. 8월 재경부 자체 금융규제 DB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규제관련 정보를 Data Base로 축적
 - * DB의 주요 항목: 규제내용, 규제근거(법령, 규정), 규제종류(설립 및 업무영역 • 건전성 • 행위 • 퇴출규제 등), 존치여부(존치, 개선, 중장기 검토), 외국사례 등

● 평가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위 등록규제 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로 볼 수 있는 사항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추가 포함
- 규제 정보의 DB화는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

III. 향후 추진계획 (2/3)

① 과제 1: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추진 (계속)

• 개선방향

- 1) 피규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Bottom-Up식 귀납법적 접근방법과
2) 규제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Top-Down식 연역법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
- T/F의 상시적 운영을 통한 금융규제 DB의 지속적 보완
 - * 각종 규제정보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검토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금융규제 DB내용의 상시적 영문번역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규제 현황에 대한 이해도 극대화
- **일정**: 1단계로 발굴된 19개 법령, 101건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곧바로 착수하고, 2단계 규제개혁 발굴작업 추진

III. 향후 추진계획 (3/3)

② 과제 2: 포괄주의 법령체계 점진적 도입

● 제도 현황과 평가

-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규제체계하에서는 금융혁신 기대난
- 상대적으로 활발한 금융혁신이 발생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이 부각

● 개선방향

-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관련법률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
 - * 경영에 따른 금융업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통합법에 마련 (예: 임직원 겸직 및 정보 공유 제한 등)
- **일정**: 2005년말까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투법 등 자본시장 관련통합법을 마련하고, 추후 포괄주의 원칙을 은행 및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금융규제개선분과위원회 위원명단〉

성명	소속	직위
김 준 경	KDI	선임연구위원
강 봉 희	은행연합회	상무
김 영 식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 지 철	저축은행중앙회	이사
박 중 민	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장
유 형 균	보험개발원	전무
이 건 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 갑 수	자산운용업협회	전무
임 유	여신전문업협회	상무
정 유 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
조 병 재	신한지주회사	상무
최 상 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홍 난 희	조흥은행	고객만족실장
추 경 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선두금융위탁채권위원회』 활동상황보고서

2005. 12. 7
보고자 : 위원장 황선웅

목 차

- 1.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 개요**
- 2. 선도금융혁신분야 추진방향**
- 3. 향후 추진계획**

1.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 개요

구 성

- 학계, 연구기관, 업계(증권, 은행, 회계, 자산운용 등), 정부관계자 등 **18명**

주요 검토과제

- 선도 금융시장 활성화 :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 선도 금융산업 육성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PEF)

검토과제 추진을 위한 분과위 운영방향

- 월 1회 분과위를 개최, 주요 검토과제별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방향을 논의
- 당면현안과제 해결 및 선도금융부문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2. 선도금융부문혁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대내여건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간 급속히 증가
 - * 상장주식 시가총액(조원) : 355.4('03) → 412.6('04) → 608.7(05.11)
 - * 펀드 수탁고(조원) : 145.5('03) → 186.2('04) → 201.9(05.11)
- **PEF**가 도입(04.12)되고, 파생상품시장이 확대되는 등 선도금융 분야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금융과 경쟁하기에는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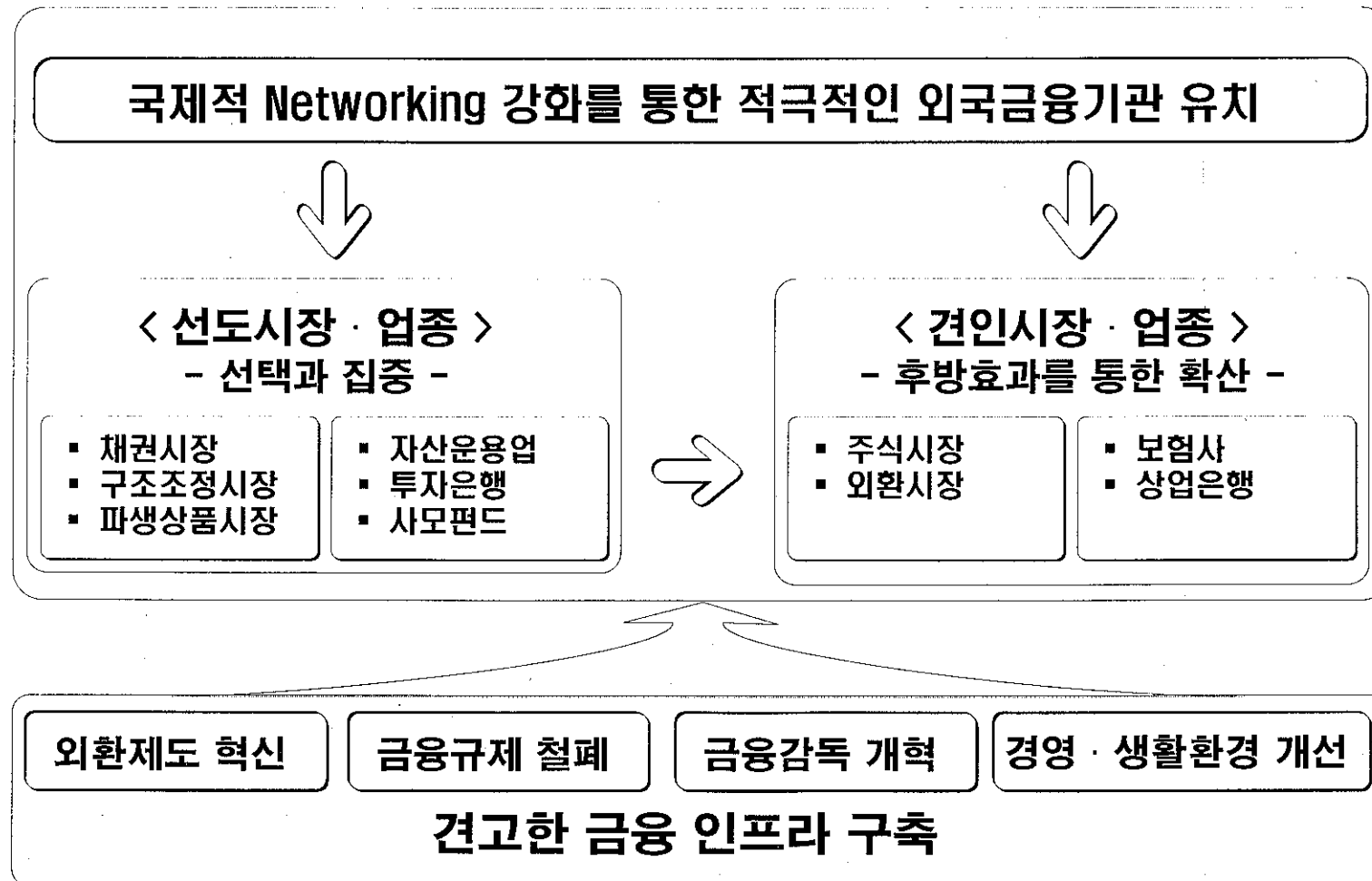
대외여건

- 중국, 일본 등의 연금시장, 구조조정 시장 등 대규모 시장의 진출기회가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큼
-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해외자본 및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자본 및 금융서비스와 경쟁 심화

추진방향과 전략

- 자산운용산업, **PEF**,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선도금융부문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주체별(정부, 금융기관, 기업, 투자자) 노력 제고

[참고] 금융허브 추진전략 개념도



3. 향후 추진계획 『 과제1 : 자산운용산업/사모투자펀드 육성 』

개 선 방 향

- 정부 :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 대형화 촉진, 펀드 운용 · 영업관련 규제완화
 - 펀드 취득권유 허용 등 펀드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기금 · 외국인등의 **PEF** 투자확대 유도, **PEF**의 투자 자율성 확대 등
- 자산운용업계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
 - Joint Venture 등 PEF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확대
- 투자자
 - 간접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확대

기 대 효 과

- 자본시장의 장기적 및 안정적 수요기반 제공 : 연기금 자산운용 다변화
- 투자의 대중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중국, 일본 연금시장 등 역내 자산운용시장 진출

3. 향후 추진계획 『 과제2 : 투자은행/파생상품시장 육성 』

개 선 방 향

➤ 정부

-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 제정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과 취급상품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 국내 투자은행 출현의 여건 마련
- 선물거래 대상품목을 현행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 파생상품 개발 전문인력 육성, 신용파생상품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 금융기관 : 새로운 업무영역 · 투자기법, 신상품 등의 개발 등 금융혁신 노력

- 단순 위탁매매 업무에서 탈피하여 유가증권인수, M&A업무 확대를 위해 기업심사분석 능력 제고

➤ 투자자 : 다양한 금융시장 · 상품 등에 대한 이해제고와 투자확대 등

기 대 효 과

- 혁신적 산업부문의 투자 지원 :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산업부문에 효율적인 자금공급 지원
- 금융부문간 쏠림현상 해소 : 은행권 위주의 자본공급 극복
- 기업 구조조정(M&A)의 촉진, 외부 충격(환율 리스크 등)의 완화

3. 향후 추진계획 『 과제3 : 채권시장/구조조정시장 활성화 』

개 선 방 향

- 정부 : 시장 인프라 개선
 - 10년초과만기 등 장기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장기 지표금리 형성
 - 신용평가 제도개선, 회사채 수탁제도 개선 등 장기 회사채 발행 활성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회사채 신용보강 활성화(신용파생상품, 단종보험회사 등 활용)
 - RP시장 · 대차시장 · 선물시장 등 채권연계시장의 육성을 통한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 개인(소매투자자), 외국인의 채권시장 참여확대 유도
 - KAMCO의 국외 부실자산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업
 - 지배구조 개선 · 경영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
 - 수익모델 발견으로 투자확대, 유동성 위험 관리강화 등 회사채 발행확대
- 투자자
 - 차익거래 · 위험관리 등 선진화된 자산운용기법 정착
 - 쓸림현상(herd behavior) 등 비합리적인 투자관행 개선

기 대 효 과

- 단기자금을 생산적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여 자금흐름 장기화, 안정화
- 연기금 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투자처를 제공하여 장기자산운용 지원
- 중국 등 역내 구조조정시장에 적극 진출

[참고] 선도금융부문혁신분과위원회 명단

이름	직책	이름	직책
황선웅(위원장)	중앙대 교수	최규성	외환은행 팀장
최 혁	서울대 교수	강민균	JKL파트너스 이사
윤영신	충남대 교수	윤영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
이창용	서울대 교수	방근석	미래에셋증권 이사
김석진	경북대 교수	장봉기	삼성투신운용 준법감시인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서종균	자산운용협회 팀장
서지희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차상기	증권업협회 팀장
김성룡	법무법인 우현 변호사	박철호	선물협회 팀장
정석구	한겨레신문 경제부장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05. 12. 7

보고자 : 위원장 손상호

차 례

I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개요

II 금융감독혁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III 향후 추진계획

I.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개요

분과위원회 구성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객관적인 의견수렴 장치인 금융업패널을 중심으로 구성

[금융업패널 : 금감위 훈령에 의거 금융권역별 협회 추천을 받아 12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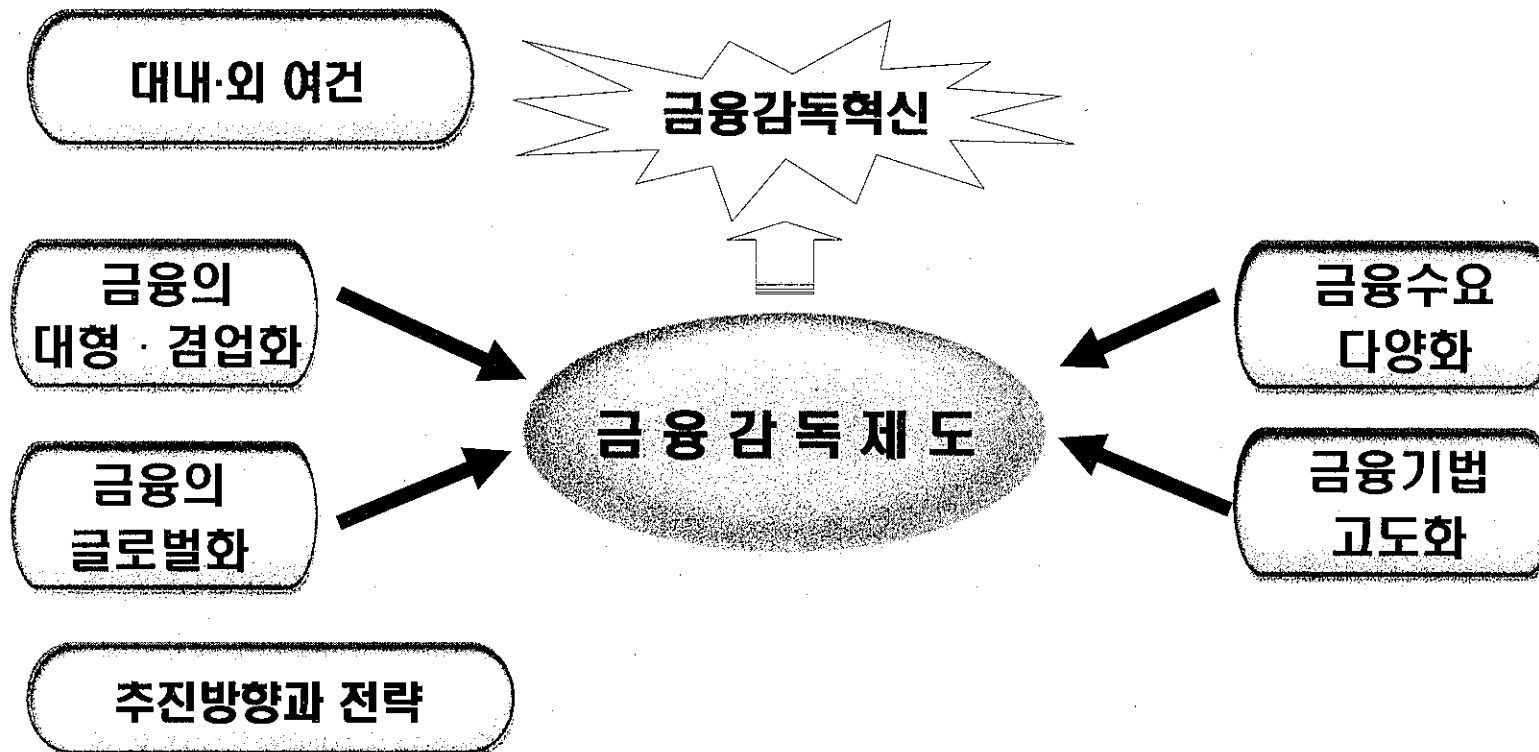
주요 검토과제

- 시장친화적, 선진적인 감독·검사 체제 구축
-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확보
-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운영 방향

- 분과위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등 탄력적 운영
- 추진과제 선정 및 시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논의

II. 금융감독혁신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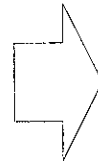
- 다양한 금융 및 검사수요 충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감독·검사업무 시행
- 자본시장이 금융허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확보
- 금융기법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추진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1 : 수요자 중심의 감독·검사업무 시행

현황 및 평가

- ① 수요자 요구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지속할 필요
 - ② 선진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의 제고가 요구됨
- ※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용도 제고 필요



개선방향

- ① 감독규제 혁신 및 감독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 금융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지속 정비
 - 외국 금융사에 대한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금융회사 자문서비스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 ② 검사제도 선진화 및 수검부담 완화
 - 금융사별 주요 리스크 중심의 검사(RBS) 정착
 - 전담검사역(RM)을 통한 상시감시 강화
 - 검사계획 사전통보 및 공시된 검사매뉴얼에 의해 검사
 - 금융회사의 내부위험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 ③ 감독업무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외국금융사와 권역별 정례간담회 개최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2 : 시장의 투명성 · 공정성 · 효율성 확보 노력

현황 및 평가

- ① 증권·자산운용업 제도 및 관행의 지속 개선 필요성
- ② 증권의 발행·유통시장 인프라 미비점 보완
- ③ 불공정 시장거래 해소 필요성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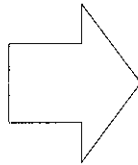
- ① 자본시장 통합화 및 자산운용업 효율성 제고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한 감독법령 정비
 - 펀드 대형화 · 장기화 유도, 자산운용사 전문화 촉진 및 운용업무의 독립성 제고
 - 펀드판매 채널 확대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자 교육 확대
- ② 증권발행 · 유통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
 - 주식 · 채권 발행 규제 합리화 등 거래제도의 선진화
 - M&A 등 경영권관련 공시제도 보완 및 상장법인 공시능력 확충 지원
- ③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 인터넷에 의존하거나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 사기적·복합적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 3 : 감독기관의 대내외적 역량 강화

현황 및 평가

- ① 금융산업의 지식산업적 특성을 감안할 때 감독 전문인력 확보 필요
- ② 선진감독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



개선방향

- ①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감독기관의 연수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 신설 금융전문대학원에 교육 파견 추진
 - 해외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에 OJT 연수 파견
 - 국내외 금융전문인력 지속 채용
- ② **금융감독당국 양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현재 7개국 10개 감독기관)**
 - 홍콩금융감독당국과 양자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금융감독의 국제적 교류 증진
 - IOSCO와의 다자간MOU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무대에서 입지 제고

금융감독혁신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손상호 [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한국시티은행 준법감시 부장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장
조익주	푸르덴셜생명 상품개발팀 상무
박현정	삼성화재 경영기획팀 상무보
김영만	동부화재 경영기획팀 상무
김동훈	한불종금 영업지원본부장
신상식	현대카드 경영정보실 상무
남영우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이용재	한국투자금융 지주회사 상무
유인수	PCA 자산운용 위험관리본부장
최호창	농협신물 준법감시 부장
김정백	생보부동산신탁 전략기획팀장
고승범	금감위 감독정책과장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05. 12. 7

보고자 : 위원장 박 재 하

차 례



1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개요

2 외환제도선진화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3 향후 추진계획

I.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개요

구 성

- ❖ 교수, 변호사, 금융기관 직원, 전경련 전문가, 재정부·한국은행 및 금감원 실무직원 등 총 12명

주요 검토과제

- ❖ 자본거래 자유화 보완대책 마련
- ❖ 외환자유화 조기시행 방안
- ❖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검토과제 추진을 위한 분과위 운영방향

- ❖ 분과위는 수시로 개최하며, 시장참가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방향을 수립
- ❖ 2005년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외환자유화 조기시행 등 당면현안과제 해결에 중점
- ❖ 2006년 이후 :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제도개선 도모

II. 외환제도선진화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대내여건

- ❖ 국제수지 흑자 지속 및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유사시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향상
- ❖ 외환시장은 교역확대 등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절대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하여 헤지펀드 등의 투기적 공격 가능성 상존
- ❖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외환제도의 조속한 자유화 필요성 점증

대외여건

- ❖ 국제투자자금의 이동이 활발하고 단기 이익추구를 위한 헤지펀드 등의 규모가 급증
- ❖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의 유출 및 국내투자자본의 유출폭 확대 가능성

추진방향과 전략

- ❖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실현을 위해 외환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하되 투기세력의 공격 및 급격한 외화유출 방지에 주력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1 : 자본거래 자유화 보완대책 마련

현행 제도 및 평가

- ❖ 자본거래 허가제가 2005년말로 폐지
- ❖ 이로 인해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및 증권차입이 자유화되어 비거주자의 투기적 공격에 의한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보증·담보제공 및 파생금융 거래를 통해 편법자본유출이 증가할 가능성

개선방향

- ❖ 자본거래 자유화가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
- ❖ 환투기 및 편법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 일정 : 2005년말까지 필요한 제도 구비 및 법령 정비 완료후 2006년초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의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책 마련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2 :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현행 제도 및 평가

-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2002.4월) 발표한 3단계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에 따른 2단계(2006~2008년) 및 3단계(2009~2011년) 자유화 조치 예정
- ❖ 현행 자유화 계획에 대하여 평가한 후 조기자유화 여부 및 규제 지속 필요항목에 대한 점검 필요

개선방향

- ❖ 채권회수의무, 자본거래 신고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지정거래 은행 제도, 환전업무등록 제도, 원화수출 등의 추가 자유화 항목에 대한 조기 자유화 가능성 등 점검
- ❖ 일정 : 금년중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병행하여 조기자유화 가능 항목 검토
2006년초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세부 자유화 일정 등 마련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3 : 중장기 외환제도발전방향 마련

현행 제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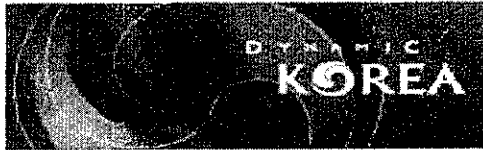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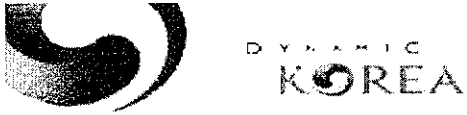
- ❖ 국내 외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및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센터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
- ❖ 자본거래자유화 이후 현재 NDF시장에서의 비거주자 외환거래가 국내외환 시장으로 이전되어 국내외환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

개선방향

-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제도 및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 원화국제화도 점진적으로 추진
- ❖ 일정 : 금년중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 변화를 전망하여 필요한 대비책 마련
2006년 이후 금융허브 구축에 긴요한 외환시장발전방향을 마련

외환제도선진화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박재하 [위원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식	서강대학교 교수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이금호	김&장 변호사
변재영	한국은행 국제기획팀장
김종건	금융감독원 국제업무팀장
김판균	외환은행 상품개발팀장
박영환	우리투자증권 결제팀장
김종운	교보생명 투자사업팀 부장
이찬석	삼성투진운용 해외투자팀장
배명한	전경련 경제조사팀 차장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



fn Hub:
Innovation and
Networking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2005. 12. 7

보고자 : 위원장 오 규 택

보고 순서

- 1. 금융허브발전전략 분과위원회 개요**
- 2. 추진방향과 전략**
- 3. 향후 추진계획**

1. 금융허브발전전략 분과위원회 개요

구 성

- 교수, 투자은행 대표, 법무·회계법인 전문가, 외국기업 임원 및 재경부 담당과장 등 총 16명

주요 검토과제

- 금융허브 발전전략의 수립 / 외국금융기관 유치방안
- 금융시장 국제화 및 자본인프라 수출/지역 특화 금융수요 개발
- 역외금융 도입의 타당성 검토
- 금융집적지역 선정문제/ 경영, 생활환경 개선

검토과제 추진을 위한 분과위 운영방향

- 3개 소그룹별로 과제 검토 → 분과위에 안건 상정
-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방안 마련
-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2. 추진방향과 전략

대내여건

- 외국금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공감대 확산 필요
 - 외국금융기관 및 대외 비거주 금융거래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상존

대외여건

- 주변 경쟁국들이 금융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 역내 저축을 역내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환류시킬 필요성 증대

추진방향과 전략

-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In-bound & Out-bound) 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역내 리더쉽 확보에 도움이 되는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

3. 향후 추진계획

과제 1 : 외국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검토배경

- 외국자본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 공감대 확산 필요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또는 영업시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 및 기타 요인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외국계금융기관 유치 방법과 노력에 대한 평가

추진방향

- 외국금융기관 유치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 1980년 후반 금융허브전략을 추진한 영국 사례분석
 - 외국 금융기관이 영국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 및 기여 분석
 - 여타 금융 허브(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의 제도적 지원 사례 검토
- 금융허브지원팀(fn HUB Korea) 구성 및 활성화 : 원스탑서비스로 고충처리

과제 2 : 역외금융 도입의 타당성 검토

현황 및 평가

-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역외금융의 활성화 필요
 -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도 역외금융제도를 적절히 활용
- 우리나라 역외금융시장은 유인 체계 부족 및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미발달
- 다국적 기업의 재무본부 유치, 우리 기업의 국제금융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 단계적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추진방향

- 1단계 : 역외금융제도의 전략적 활용방안 검토
 - 다국적 기업의 재무본부 유치 필요성 및 방안 등
 - 비거주자간 금융거래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 검토
- 2단계 : 역외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별 해소방안 검토
 -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문제
 - 조세회피, 자금세탁 등 불법금융거래, 거래 불투명성 문제 등

과제 3 : 금융인프라수출 방안 마련

검토배경

-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국의 공동 노력이 가시화됨
 - ASEAN+3 (한·중·일) 금융협력의제로 Asia Bond Market Initiative (ABMI) 추진중
 - 향후 FTA 추진, 금융통합 노력이 가시화되어 ASEAN+3 협력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역내 개도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
 -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본시장 인프라(IT, 자본시장 제도) 개도국 수출
 - 지역통합 움직임에 능동적 대응 및 역내 리더쉽 확보
 - 특히 2006년도에 ASEAN+3 공동의장국으로서 역할 강화 필요

현황 및 평가

- 다양한 기관들이 개도국 자본 시장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
 - 참가기관 :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금융결제원, 채권연구원 등
 - 참가유형
 - 유형 1: KOICA 자금을 통한 외국인 연수, 전문가 파견, 프로젝트 수행
 - 유형 2: 기관 자체 자금을 통한 전문가 파견 및 기술지원
 - 유형 3: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통한 직업훈련원 건립
 - 유형 4: 재경부 Knowledge Transfer Program을 통한 기술지원
 - 유형 5: ABMI를 통한 Bilateral TA제공
 - 유형 6: ABMI를 통한 시스템 수출
 - 유형 7: ADB 용역 입찰을 통한 용역수출
 - 유형 8: 민간부문 수출
- 단발성, 일회성이므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미흡

추진방향

- 체계적/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 금융인프라 수출협의회 구성
 - 각국별, 국제기구별로 Network 구축, 국제협력 확대 방안
- 전략상품개발
 - 수출 대상국별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 선정
 - 패키지 상품 개발
- 금융인프라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연수프로그램 개발 (KOICA, Knowledge Transfer Program, E-Asia Fund 등)
 -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개발 (기관자체 예산, E-Asia Fund 등)
 - 금융지원을 통한 인프라 수출
- 금융지원 방안 (수익성여부 / 대상국별 차별화) 마련
 - 대외경제협력기금/수출보험기금 활용방안
 - **ADB/IDB TA**펀드 활용방안
 - 인프라 관련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민간펀드 결성 촉진

기대효과

- 우리 금융산업을 수입대체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인식전환
- 동남아 국가와의 IT와 인적자원 교류 확대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는데 기여
-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 확보
-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동남아 국가와 연계를 통해 지역통합 논의 이니셔티브 확보

과제 4 : 개발금융 발전방안 마련

현황 및 평가

- 개발금융/PF금융 수요는 주로 종합상사, 건설사, 공사 등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발생
 - 국내에서는 주로 민자유치사업, 부동산개발금융을 통해 발전
- PF는 주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협조융자 수준
 - 상업은행은 실적, 금리경쟁력, network부족 등으로 참여도 저조
- 향후 10년간 동북아 지역의 SOC 개발 수요가 큼 (1.2조불 수준)
- 국내유휴자금을 활용하여 개발/PF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 필요

추진방향

- 해외건설사, 종합 상사와 금융기관간 시너지 도모 방안 마련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개발/PF금융 역량 강화방안
 - **Cofinancing** 활성화 방안
 - 개발금융 정보제공체계/**network** 구축 방안
 - 국제기구 구매절차 참여 확대를 통한 **PF**활성화 방안
 - 국내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기대효과

- 향후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아시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외건설사, 종합상사와 금융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금융허브전략분과위원회 명단

오규택 [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강철준	금융연수원 교수
박대근	한양대학교 교수
국 균	Ernst Young 대표
이미현	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두용	KIEP 박사
안재환	한국 IBM 전무
박제용	KIC 상무
이현승	GE Korea 전무
유니스 김	씨티은행 부행장
박준규	HSBC 부대표
임태섭	Goldman Sachs 대표
임석정	JP Morgan 대표
이재홍	UBS 대표
이진영	PwC 전무법무
이원식	금융허브기획과장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

운영계획

2005. 12. 7

보고자 : 강 종 만

차 례

I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 개요

II 금융전문인력양성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III 향후 추진계획

I. 금융전문인력양성분과위원회 개요

구 성

- ❖ 재경부, 금감위 및 한은의 책임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및 금융연수원의 임원, 금융연구원 책임자, 교수 등

주요 검토과제

- ❖ 금융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개선 지원
- ❖ 금융연수기관의 역량 강화
- ❖ 금융교육의 국제화 추진

분과위 운영방향

- ❖ 분과위는 분기별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 ❖ 금융전문인력 양성관련 정책 과제의 발굴과 건의

II. 금융전문인력양성분야 추진방향과 전략

대내여건

- ❖ 금융업 종사자 중 금융전문인력 비중이 8.9%로 보조인력 위주의 인력운영 [홍콩 43.8%, 싱가포르 51.3%]
- ❖ 금융관련 석사학위 수여기관이 220개이나, 금융전문인력은 1,500명 부족
- ❖ 금융연수기관이 초급인력 양성 또는 평생교육 위주로 운영

대외여건

-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 ❖ 금융업 개방 확대로 외국 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간 경쟁 심화

추진방향과 전략

-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전문 교육기관의 육성 지원
- ❖ 금융회사 수요에 맞는 금융전문인력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 1 : 금융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현행 제도 및 평가

-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미흡
- ❖ 금융업권별 자격증의 적정성 및 업역간 인력이동 제약 요인 존재

개선방향

- ❖ 금융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략 수립
- ❖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금융전문대학원과 금융인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원
- ❖ 금융관련 자격증의 수준 향상을 통한 자격증제도의 선진화 추진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2 :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개선 지원

현행 제도 및 평가

- ❖ 금융회사 내 금융전문인력의 비효율적 관리로 금융업의 경쟁력 향상 저해
- ❖ 금융업 내 금융전문인력의 수급현황에 관한 정보 부재로 수급간 불일치 발생

개선방향

- ❖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통한 금융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개 활성화
- ❖ 금융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략 수립 및 지원
- ❖ 금융회사 내 금융전문인력의 전략적 관리 방안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과제 3 : 금융연수기관의 역량 강화

현행 제도 및 평가

- ❖ 공급자 중심의 금융교육으로 금융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 ❖ 금융 교육기관간 경쟁 및 협력관계가 부족하여 금융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곤란

개선방향

- ❖ 금융관련 교육 수요 전망 및 금융회사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
- ❖ 금융전문 교육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 금융연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III. 향후 추진계획

과제 4 : 금융교육의 국제화 추진

현행 제도 및 평가

- ❖ 해외 금융관련 자격증의 불인정으로 금융업의 국제화 및 인력교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국내 위주의 금융교육으로 세계화된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수준

개선방향

- ❖ 국내외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의 호환성 모색 지원
- ❖ 해외 금융연수기관을 활용한 금융전문인력의 질적 향상 지원
- ❖ 동남아 국가의 공무원 및 금융실무자에 대한 금융 연수를 통한 아시아내 금융인력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의 설립 운영

